

이재섭, “제주의 병문천과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문

김 선 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회 제50차 전국학술대회에서 이재섭 선생님의 “제주의 병문천과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재섭 선생님은 병문천 복개 사업을 둘러싼 3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병문천 복개 사업의 배경이 되었던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과 병문천 복개 과정 전반 그리고 그것이 가진 함의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고 계셔서 특별히 제가 논평할 거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이번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 공동자원 개념을 중심으로 사족이나마 몇 가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

선생님께서 발표문의 ‘병문천 복개 전’과 ‘병문천 복개의 발단’ 부분을 통해, 병문천이 한때 주민들의 공동자원이었으나 필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주민들이 병문천 복개를 찬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공동자원과 공동체 관계의 친밀성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사실 공동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경제학적 기준 이외에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때 공동자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동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언젠가는 공동자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서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는 공동자원을 계속 공동자원일 수 있게, 공동자원이 아닌 자원을 공동자원이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복개 결정 당시 병문천은 과연 주민들에게 공동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었을까요?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병문천은 주민들의 삶이 펼쳐지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병문천을 공동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수도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병문천과 멀어지게 되고, 급격한 도시개발로 발생하게 된 쓰레기와 오폐수가 병문천으로 흘러들게 되면

서, 주민들에게 병문천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닌, 치워버리고 감추어 버려야 할 문제의 공간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따라서 당시 병문천은 주민들로부터 공동자원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급증하는 주차문제 역시 주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으므로, (사업 결정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병문천 인근 주민들이 병문천 복개 사업을 반대할 이유는 매우 적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실제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영향으로 개발 반대 운동의 불씨가 살아있던 당시에 병문천 인근 주민들이 나서서 복개 사업을 반대했다는 증거는 발표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발표문에는 오히려 병문천 인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병문천 복개 촉진대회’를 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병문천 복개에 대한 주민들의 다수 의견은 찬성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발표문에 따르면, 주민들이 병문천 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느낀 계기는 2007년 태풍 나리의 여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병문천이 다시 주민들의 인식 지평 속에 들어오게 되자, 병문천 복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풍을 계기로 병문천이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병문천이 주민들로부터 다시 공동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문천은 한때 주민들의 공동자원이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하자 개발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또 그 개발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다시 공동자원의 위상을 획득해 나가는 변형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재섭 선생님의 발표는 우리가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공동자원의 사회적 속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병문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조금씩 병문천이 지닌 공동자원적 속성을 학습하게 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 버린 복개 사업 자체를 비판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것이 가져오는 학습효과에 주목하여 앞으로 병문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이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실천적 논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동자원 인식 주체의 다층성과 커머닝 전략

발표문에 따르면, 병문천 복개를 찬성하는 인근 주민들과는 달리 병문천 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는 탐동 매립 자체가 환경 파괴였는데 그 대가로 또 하나의 환경 파괴를 제안했다며 병문천 복개를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개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도민사회의 여러 층위가 드러납니다.

이때 장훈교 박사님의 주민과 도민의 차이에 대한 설명¹⁾은 이와 같은 상황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훈교 박사님은 “주민은 도민과 달리 특정 장소와 결합한 존재로서,

1) 장훈교. 2019.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60: 288-290 참조.

전체사회가 아닌 장소 기반 공동체와 일차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존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반해 도민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지역사회의 전망 하에서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르면, 병문천 복개에 반대했던 범도민회는 탐동 매립 반대 운동을 위해 도민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도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은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주민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개발에 찬성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쪽에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그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었겠지요. 물론 병문천 복개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제주도와 제주시, 범양건영 3자간의 합의로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이점에서 해당 사업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저는 공동자원 개념과 관련하여 생각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주민들에게 병문천은 한때 공동자원이었지만, 병문천 복개 결정이 나던 시점에는 공동자원으로서의 위상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개를 반대하던 도민들에게 병문천은 여전히 공동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병문천을 두고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는 양측의 입장을 보면서, 공동자원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의 주체가 단일하지 않고 다차원적이며, 층위에 따라 다르게 공동자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제2공항과 같은 제2의 탐동 매립사업, 병문천 복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존권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생존 또는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이용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마냥 무심히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존권을 주장하며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공동자원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공동자원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공동자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움직임을 커머닝(commoning)이라고 할 때,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커머닝 전략은 무엇일까요?